

## [인터뷰] 가르침에 대한 성찰

'제1회 서울대학교 교육상' 수상자 릴레이 인터뷰

본지는 이번 호부터 올해 봄 '제1회 서울대학교 교육상'을 수상한 일곱 분 교수들의 말씀을 통해 듣는 시간을 차례로 마련하고자 합니다. 인터뷰는 세 가지 동일한 질문에 대해 일곱 분의 교수들께서 각각 답해주시는 형식으로 진행될 것입니다. 이번 호에서는 이준구 교수께 질문을 드렸습니다.

## '제1회 서울대학교 교육상'을 수상하신 소감을 말씀해주십시오

우리 대학의 제1회 교육상 수상자로 선정된 것을 무척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솔직히 말씀드려 제가 정말로 이상을 받을 자격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큰 자신이 없습니다. 저보다 훨씬 더 열성적으로 학생들을 지도하시는 분도 많고, 저보다 훨씬 더 잘 가르치시는 분도 많다는 것을 잘 알기 때문입니다. 그 모든 분들에게 마땅히 돌아가야 할 상을 제가 운 좋게 대표로 받는 영광을 누렸다고 생각합니다.

## 수상의 계기나 과정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동안 제가 교수 생활을 해오면서 교육에 특히 많은 관심을 가져온 것은 사실입니다. 저는 우리 대학들이 연구만을 강조하고 교육의 질적

개선을 위한 노력을 소홀히 하는 경향을 보이는 데 대해 상당한 우려를 갖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사회를 이끌어나갈 훌륭한 인재를 길러낸다는 것은 절대로 소홀히 해서는 안 되는 중요한 임무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볼 때 우리 대학이 교육상을 도입하는 등 교육의 질적 향상에 적극적인 관심을 보이기 시작한 것은 무척 다행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현재 우리가 갖고 있는 인적 자원만 제대로 활용한다면 단기간 안에 교육의 질을 세계 최상위 수준으로 끌어올릴 수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제 개인적 얘기를 해보자면, 그동안 상당수의 교과서를 썼다는 것이 교육에 대한 저의 관심을 반영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저는 우리말로 된 좋은 교과서가 많이 나와주어야 한다고 믿습니다. 외국어로 된 책은 아무래도 언어와 문화의 장벽 때문에 전달력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교과서를 쓴 경험이 강의에도 많은 도움이 된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중 가장 중요한 점은 학생과 대화하는 방법을 배울 수 있었던 사실입니다. 똑같은 이론이라 해도 어떻게 설명하느냐에 따라 학생들이 이해하는 정도가 크게 달라집니다. 교과서를 쓰면 이 점에 대해 많은 생각을 하게 되고, 이에 따라 학생들과 대화하는 방법을 배우게 됩니다.

제가 교과서를 쓸 때나 강의를 할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학생들이 즐겁게 공부할 수 있게 만들자는 것입니다. 경제학을 어렵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실제로 경제학을 공부하면서 많은 고생을 했다고 말하는 사람도 적지 않습니다. 저는 경제학을 즐겁게 공부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믿습니다. 그 방법을 찾는 것이 저의 가장 중요한 과제 중 하나입니다.

앞으로 계획하시는 일은 무엇입니까?

교수라면 누구나 갖고 있는 욕심이겠지만, 저 역시 혼이 실린 멋진 강의를 해보고 싶습니다. 가르친 경력이 25년이 넘지만, 그 경지에 도달하려면 아직 멀었다고 느낍니다. 그래서 좀더 좋은 강의를 할 수 있게 하기 위해 연구와 노력을 아끼지 않을 생각입니다. 이번에 제가 받은 교육상은 바로 그런 노력을 재촉하는 채찍이 아닐까요? ☺